

경제

Econ-Guide

미국 7월 고용: 같지만 같지 않은 이유

2017. 08. 07

경제
권아민
02 369 3490
ahminkwon@dongbuhapp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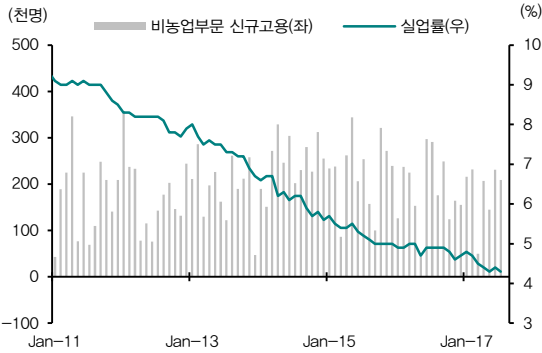
- 양적인 고용회복 지속, 6월 수치도 상향되어 3개월 신규고용 평균 19만명 상회
- 임금상승률은 전망치 상회, 노동공급 증가에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결국 물가 모멘텀은 유지 중. 실질임금 반등과 맞물려 소비 촉 회복을 기대

비중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신규고용 호조 지속: 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20.9만명 증가해 전망치 18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6월 신규고용 역시 22.2만명에서 23.1만명으로 상향되며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은 2개월 연속 19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전체 신규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문이 양호했다. 교육/의료(+5.4만명), 전문서비스(+4.9만명) 및 레저(+6.2만명)가 견조한 가운데 도/소매업의 신규고용은 전월대비 둔화됐다. 제조업은 1.6만명 증가해 2개월 연속 신규고용 증가 폭을 확대했다. 한편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4.3%를 기록해 전망치에 부합했다. 한계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를 반영해 채감실업률로 불리는 U-6실업률은 8.6%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임금상승률은 4개월 만에 전망치 상회, 공급증가에도 견조한 것이 중요: 금번 고용지표에서 양적 지표보다도 이목을 끌었던 것은 임금상승률이다.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2.5%올라 전망치 2.4%증가를 상회했으며, 전월대비로는 0.3%증가해 전망치에 부합했다. 추이로만 보면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은 4개월 연속 2.5%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임금상승압력이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임금상승률이 전망치를 조금씩 하회하며 미진한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데이터는 충분히 고무적이다. 더욱이 4, 5월과 달리 노동공급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 다시 말해 경제활동인구가 2개월 연속 대폭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동일한 수준의 임금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은 5월 62.7%로 4월과 비교해 0.2%p 하락했으나 6월 62.8%, 7월 62.9%를 기록해 다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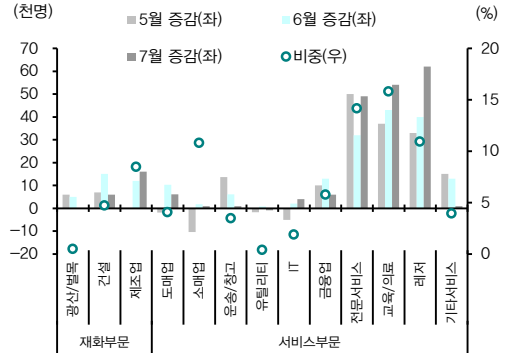
핵심은 물가, 금번 지표가 물가 모멘텀 존재를 증명: 최근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다. 제조업, 고용(특히 양적)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잡음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물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1) 글로벌 수요회복(중국 수출과 PPI가 증명)에 따른 글로벌 생산물가 지지, 2) 경기모멘텀 차이에 기인한 달러약세가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금번 지표는 공급 증가에도 임금상승률이 유지되며 임금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판단한다. 물가는 미래 소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실제 장기추이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에 선행하거나 때때로 동행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 최근 주춤한 물가상승률은 실질임금 반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금 소비자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으며 속도의 회복세를 지켜볼 때다.

도표 1. 7월 비농업 신규고용 20.9명으로 전망치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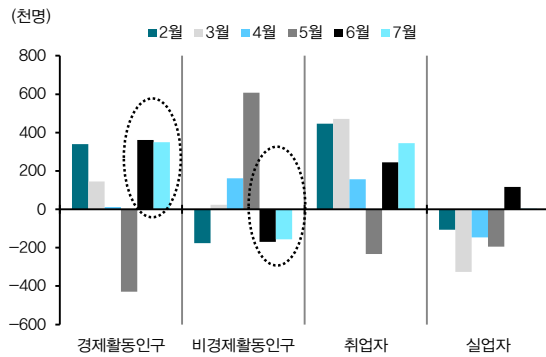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동부 리서치

도표 2. 부문별 신규고용: 교육/의료, 전문서비스, 레저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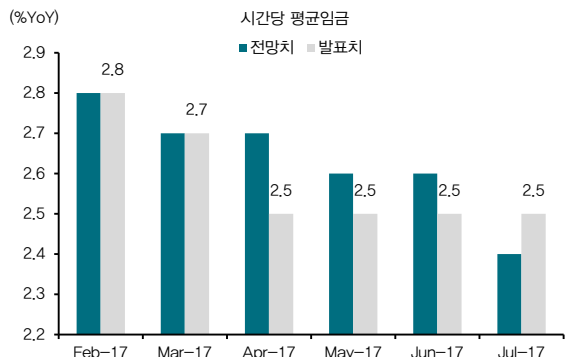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동부 리서치

도표 3. 6월과 7월, 노동인구 대거 유입된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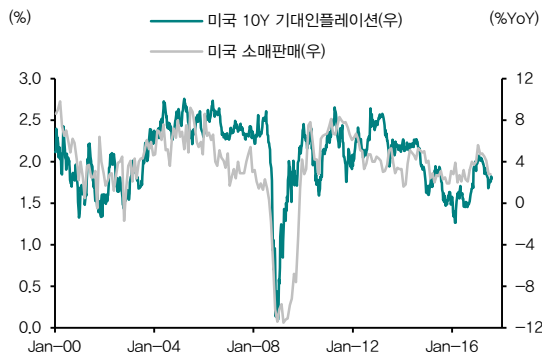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동부 리서치

도표 4. 시간당 평균임금은 4개월 만에 전망치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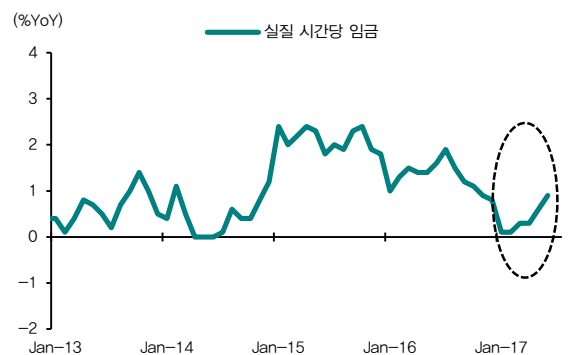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동부 리서치

도표 5. 물가가 결국 소비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 Bloomberg, 동부 리서치

도표 6. 실질임금의 반등세는 소비에 기여할 가능성 높아



자료: Bloomberg, 동부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